

글로벌 뉴스 다이제스트 26.07.23(오후)

26.07.23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뉴스 라운드업

-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완전봉쇄 선언·카자흐 CPC 터미널 가동 중단 — WTI 배럴당 \$90.19(+3.87%)로 에너지 공급충격 3 차 확대
- 유가 급등발 인플레이 재점화 우려 — 미국 2 년물 4.304%(+4.3bp), 독일 10 년물 15 년래 최고(3.186%), 9 월 연준 인상 확률 77% 반영
- KOSPI +4.40% — 한국 2Q GDP 전분기 대비 +0.6%(예상 +0.4%) 상회 견인, 밤사이 호르무즈 이벤트는 미반영
- ECB 오늘 2.25% 동결 유력 — 중동 분쟁 이후 유로/달러 1.14 로 약세 지속, 10 월 추가 인상 시그널 가능성 주목

호르무즈 봉쇄에 WTI \$90 돌파, 인플레이 재점화 우려가 글로벌 금리 상방 압력을 재확인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늘 오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에 두고 있다'며 사실상 봉쇄를 선언하고, 해협 남쪽 수역에서 유조선 한 척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장 내내 강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12 일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최대 원유 수출 경로인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 흑해 터미널도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해당 유전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보도까지 겹쳤다. 후티 세력의 홍해 사우디 유조선 공격까지 더하면 호르무즈·홍해·바브엘만데브 세 해협이 동시에 위협받는 형국으로, WTI 는 배럴당 \$90.19(+3.87%)로 마감했다. 하우스 뷰에서 상정했던 에너지 공급충격 3 차 단계 시나리오와 정확히 맞닿아 있으며, 기존 기준점(\$86 달러대)을 이제 뚜렷이 넘어섰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직결되며 글로벌 금리를 전방위로 밀어 올렸다. 미국 2 년물 국채금리는 뉴욕 전일 마감 기준 4.304%(+4.3bp) 까지 올랐고, 연방기금선물 시장은 9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확률을 77%까지 반영하고 있다. 현재 목표금리 레인지(3.50~3.75%)에서 연내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준이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늘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나, 독일 10 년물 국채금리가 3.186%로 15 년 만의 최고 수준에 올라서면서 시장은 이미 10 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앞당겨 담기 시작했다. 중동 분쟁 이후 유로/달러가 1.18 선에서 1.14 까지 밀려 있어, ECB 는 에너지발 인플레이와 통화 약세라는 이중 압박을 안고 오늘 기자회견에 임하게 됐다. 한편 지정학 리스크 고조 국면에서 통상 강세를 보이는 금은 오히려 -0.94% 하락했다. 시장이 유가 상승을 '안전자산 수요'보다 '연준 추가 긴축 우려'로 더 강하게 읽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풀이되며, 하우스 뷰의 베어 플래트닝 기조—단기물이 장기물보다 가파르게 상승—와 방향이 일치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단연 돋보였다. 한국의 2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로 시장 예상치(+0.4%)를 상회하면서 코스피가 4.40% 급등하고 달러/원 환율은 1,469.31 원(-0.49%)으로 내려왔다. 다만 코스피 마감은 오늘 오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선언 이후 이벤트를 반영하기 전 시점의 수치로, 에너지 충격이 내일 아시아 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오늘부터 이틀간 대만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에 돌입했고, 유럽연합(EU)은 러시아를 겨냥한 21 번째 제재 패키지에 합의해 금융 기관 94 곳과 모스크바 증권 거래소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정학 변수가 중동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유럽으로 중첩되는 양상이어서, 당분간 에너지와 금리 두 변수를 중심으로 자산 가격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국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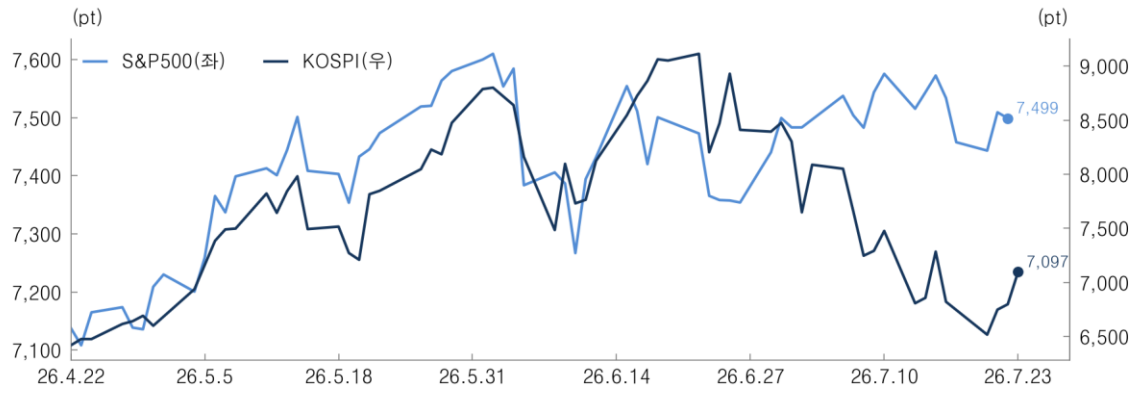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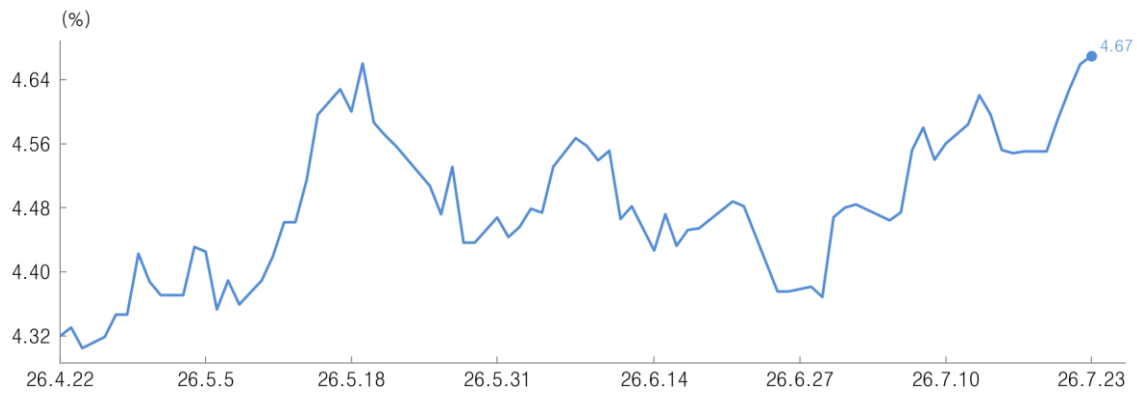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498.96	-0.14%	7/22 종가
	나스닥	25,690.90	-0.57%	7/22 종가
	STOXX 600	642.02	-0.76%	7/23 20:06 KST 장중
	닛케이 225	66,422.38	+0.46%	7/23 종가
	CSI 300	4,728.00	+0.23%	7/23 종가
	KOSPI	7,096.89	+4.40%	7/23 종가
	항셍	25,210.81	+1.28%	7/23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101.21	+0.07%	7/23 종가
	달러/엔	163.37	+0.14%	7/23 종가
	유로/달러	1.14	-0.07%	7/23 종가
	달러/원	1,469.31	-0.49%	7/23 종가
	달러/위안	6.77	-0.03%	7/23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659%	+3.3bp	7/22 종가
	미국 2 년	4.304%	+4.3bp	7/22 종가
	일본 10 년	2.765%	+2.4bp	7/23 종가
	독일 10 년	3.186%	+0.1bp	7/23 20:06 KST 장중
	한국 10 년	4.383%	+2.9bp	7/23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9bp	-	7/21 종가
원자재	WTI	90.19	+3.87%	7/23 종가
	금	4,089.55	-0.94%	7/23 종가
	구리	6.47	-0.33%	7/23 종가
변동성	VIX	16.64	-2.35%	7/22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21 권 HIGH	• 호주 6 월 고용 76.3k 증가로 예상 4 배 초과, RBA 연말 인상 확률 97%로 급상승 ↳ 순 일자리 증가 76.3k(전월 43.9k) vs 시장 예상 15.3k — 14 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 ↳ 부분시간 일자리 47k 증대, 실업률 4.4% 유지, 경제활동참가율 67.0%로 상향 ↳ 8 월 10-11 일 호주준비은행(RBA) 회합 인상 확률 28%, 연말까지는 97%로 평가(기존 78%에서 상향) • 호주달러 0.7020 접근, 고용 강제 후 기술적 38.2% 추적선 돌파 ↳ AUD/USD 0.6990→0.7020 상승, 5 월-6 월 낙폭(0.7277→0.6866)의 38.2% 피보나치 추적선 0.7023 넘어서며 기술적 강제 신호 ↳ 다음 저항선 0.7028-58(50-100 일 이동평균), 0.7073(50% 피보나치), 지지선 0.6960-65 ↳ 중동 긴장 심화로 유가 상승이 상승 둔화, 다음주 소비자물가(CPI) 데이터가 RBA 기대 등락 좌우할 전망 • 중동 분쟁 격화로 유가 6 주 최고 \$100 근처 접근, 홍해 호티 군사 활동 위협 ↳ 유가 6 월 초 \$70→현재 \$100 근처(6 주 최고), 미국 대통령 이란 기반시설 파괴 위협 후 +2.95% 상승, 오늘 추가 +1.5% ↳ 예멘 친이란 호티(Houthi) 무장단체 홍해 사우디 탱커 습격 선포 → 전략적 유조선 해로 차단 위협 ↳ 유가 상승 영향: 금 약세(-0.6% \$4,103/oz), 아시아 채권 수익률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로 글로벌 금리 경로 긴장 • ASEAN 역내 보안 회담에서 '심각한 지정학·지경제 불확실성' 경고 ↳ 태국 의장국 주최,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와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 등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중동 분쟁 및 평화 협상 논의 ↳ 중국, 필리핀의 남중국해 '침입' 재차 비난, 역내 해상 긴장 고조 ↳ 에너지 안보 위험 상승, 역내 교역·투자 불확실성 심화 평가 • 싱가포르 6 월 핵심 물가 1.6% y/y 로 예상 부합, 싱가포르통화청 7 월 27 일 정책 기다리는 중 ↳ 유제거 물가(core CPI) 1.6% y/y(예상치 동일), 전체 물가 1.9%(예상 2.0% 상회) ↳ 싱가포르 2 분기 국내총생산(GDP) 5.7% y/y 성장(예상 5.5%), AI 칩 수요 견인으로 경제 견조 ↳ 싱가포르통화청(MAS) 7 월 27 일 회합에서 통화 유효환율(NEER) 정책 밴드 유지 가능, 긴축 선호(매파적) 기조 지속 예상 • 아시아 주식 반등, 미국 IT 업체 AI 인프라 대규모 투자 공시로 반도체주 상승 ↳ 알파벳·테슬라 등 기술주 AI 설비투자 규모 공개 후 동아시아 칩메이커 수혜, 호주 S&P/ASX 200 +0.2%(8,839p) ↳ 광산주·금융주 각각 +1.3%, +0.3%, 다만 자본지출 수익률 우려로 변동성 존속 ↳ 미국 시간외 테슬라·알파벳 3~4% 하락으로 글로벌 기술주 심화 약세 가능성 남음 • JPMorgan, 이스라엘 셰켈 연말 전망 2.80→2.95 로 하향, 중앙은행 개입 강화 반영 ↳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완화 기조(금리 인하 선호) 입장, 환율 개입 수준 상향 평가

권역	요약
	↳ 글로벌 기술주 약세(AI 경쟁·규제 우려)와 겹쳐 현 수준에서 셰켈 절상(강세) 여지 제한 판단 • 달러 롱 포지션 역대 2 위 수준, 주식·채권 극단적 변동 속 시장 정정 위험 고조 ↳ 통화거래자 기록적 달러 매수(롱) 포지션, 주식 최고가·채권 최저가 동시 기록으로 극단적 리스크 구조 ↳ 배경: 러-우크라 전쟁, 중동 분쟁 심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 → 금리 인상 우려 → 달러 강세 추구 ↳ 신규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 금리 인상 확률 상승 시 포지션 정정 압력 가시화 가능
미국 뉴스 21 건 HIGH	• 이란-후티 미사일 공격 재개로 홍해 선박 블록 위험 & 유가 6 주 고점 경신 (인플레 우려 재점화) ↳ 23 일 이라크 국경 살람체·부시역 미사일 공격으로 사상자 발생, 미국-이란 신규 분쟁 신호 ↳ 이란 지원 후티 민병대의 홍해 사우디 유조선 전면 블록 선포로 수에즈-홍해 유가 경로 신규 차단 위험 ↳ 유가 5 일 연속 상승으로 6 주 고점 경신. 미국 단기 국채(3 개월) 수익률이 17 개월 고점으로 급등, 인플레 지속성 및 연준 인상 시장 평가 변화 • 달러/엔 163.45 로 40 년 고점 돌파, 연준 9 월 인상 완전 가격반영 (ECB 는 오늘 동절 예상) ↳ 달러/엔 163.45(40 년 신고점), 달러지수 101.11 유지. 유가·국채 수익률 상승의 저금리 엔화 약세 작용 ↳ 로이터 설문: 79%의 이코노미스트가 160 수준의 달러/엔은 일본 펀더멘탈상 약함 평가. 일본 재무성 개입 위험 가중으로 옵션 시장이 엔화 콜옵션 프리미엄 상향 조정 중 ↳ ECB 23 일(오늘) 금리 동절 전망이나 9 월 인상 가능성 검토. 연준 29 일 현 기준금리(3.50~3.75%) 유지 전망이나 시장이 9 월 인상을 완전히 가격반영. 유가·관세 쇼크가 정책 불확실성 높이며 1 주 옵션 내재변동성 상승 중 • 중국-미국 무역위원회 상호관세 인하 협의 가속화, 서버칩 가격 40% 급등으로 공급망 압박 ↳ 중국 상무부, 미국 Board of Trade 구체 운영 방안(조직·기능·모델) 협의 중. 국내 기업·협회 및 미국 업계 의견 수렴 진행 ↳ Intel·AMD 가 중국 클라이언트와 서버용 CPU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올해 서버칩 가격 40% 이상 상승으로 AI 데이터센터 수요 파급 확산 ↳ 베트남이 미국에 Section 301 조사 종료·무역협상 체결 촉구.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닐라 회담에서 미국 최대 수출 대상국과의 관계 재정렬 논의 • 미국 투자자, 인플레·탈세계화 시대 채권의 다양화 기능 재평가 → 상품·인프라·사적신용 선호 전환 ↳ 과거 수십년 동안 채권은 주식 약세 시 완충 자산 역할 수행했으나, 인플레·탈세계화·대규모 적자 환경에서 효과성 약화 인식 확산 ↳ 포트폴리오가 원유·귀금속 등 상품, 인프라, 사적신용으로 인플레 헤징 자산 채편 중. 채권은 비중 축소 추세 ↳ 금이 0.9% 하락(\$4,091/oz)했으나 유가 급등·연준 인상 기대가 구조적 인플레 인식 강화
유럽 뉴스 21 건	• ECB 본일 금리 동결, 에너지 충격 속 9 월 인상 신호 강화 ↳ 정책금리 현 2.25% 유지, 9 월 추가 인상(2.5% 목표)을 시장이 높게 평가

권역	요약
HIGH	- 유가 배럴당 90 달러 이상, 천연가스 7 월 초 이후 50% 상승하며 인플레이 압박 심화 -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현지시간 12:45 예정 • 독일·영국 채권 수익률 급등 — 유럽중앙은행 긴축 신호와 유가 반영 - 독일 10 년물 수익률 15 년 만에 최고점, 2 년물도 2 년 최고 수준 기록 - 영국 10 년물 gilt(국채) 5.0862%, 30 년물 5.7775%까지 상승(각각 5 월 이후 최고가) - 시장이 에너지 가격 급등이 유럽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 EU 러시아에 21 번째 제재 패키지 채택 — 금융부문 광범위 강제 - 러시아 금융기관 94 곳(모스크바 증권거래소 포함) 자산동결 범위에 포함 - 러시아산 유가 상한선을 배럴당 44.10 달러로 12 개월간 고정, 러시아 해상 환적선(새도우 플릿) 지원 선박 추가 제재 1 월 1 일 이후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제 3 국 이전은 예외 조치 인정 • 환율 — 유로화는 상승, 엔화는 1986 년 12 월 이후 최저 기록 - 유로는 유럽중앙은행 회의 기대감 속 주간(1 주) 최고가 근처로 회복 - 일본 엔화 지난주 화요일 163.23 까지 약세, 1986 년 12 월 이후 40 년 최저점 갱신 - 중동 긴장으로 유가가 6 주 만에 배럴당 90 달러 이상까지 회복한 것이 에너지·통화 연동성 강화 배경 • Total Energies Q2 순이익 67% 증가 — 3 년 만에 최고 수익성 - 조정순이익 60 억달러로 시장 예상과 부합, 3 년 중 최고 분기 실적 기록 - 정제 부문(거래 포함) 전년 동기 대비 362% 급증, 이란 전쟁 이후 높은 정제마진이 주요 견인 요인 3 분기 자사주 매입(자본 반환) 15 억달러 유지 • BNP Paribas Q2 순이익 43.5 억 유로(33% 증가) — 투자은행 트레이딩 호황 견인 - Q2 수익 12% 증가, 투자은행 부문이 거래 붐을 타며 이익 기여도 확대 - 소매 부문 순이자이익(금리 수입과 대출 이자 차이)이 프랑스·벨기에에서 강한 회복세 - 핵심자본비율(CET1) 13%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 • UniCredit 상반기 실적 예상 상회 — Commerzbank 투자 수익률 15% 기대 2026 년 이익 전망 소폭 상향 조정 - Commerzbank 지분 투자로 15% 수익률 기대(계획했던 47.5 억 유로 자사주 매입은 취소) • 프랑스 비즈니스 신뢰도 7 월 97 포인트로 4 개월 최고 — 중동 전쟁·폭염 영향 한정 - INSEE(프랑스 통계청) 조사, 장기 평균(100)은 미달하나 3 월 이후 최고(6 월 95 포인트 대비 반등) - 제조업은 생산·주문 증가로 상승, 소매업이 가장 큰 회복폭 기록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재점화와 국내 폭염에도 불구하고 심리 개선 • Thales 상반기 수주 124.7 억 유로로 21% 증가 — 글로벌 분쟁 확산이 감시·방위 수요 촉발 - 시장 예상(1% 증가)을 대폭 상회, 1 억 유로 이상 대형 계약 18 건 포함 - 방위·항공우주 부문 이익률 개선으로 순이익도 예상을 크게 상회 - 주가 2.7% 상승 • 덴마크·네덜란드 소비자 신뢰도 약세 심화 — 덴마크 -14.7, 네덜란드 -35 포인트

권역	요약
	↳ 덴마크 7월 소비자 신뢰도 -14.7 포인트(지표별 부진 지속) ↳ 네덜란드 전월 -39 포인트에서 -35 포인트로 소폭 개선했으나 여전히 저수준 • 라인강 수심 저하로 화물선 부분 적재 운영 — 독일 물류비·배송 일정 압박 가중 ↳ 여름 폭염과 강우 부족으로 수위 감소, 화물선이 여러 척에 분산 적재 강요 ↳ 화물주의 비용 증가 및 배송 지연, 경기 회복 초기 독일 산업에 새로운 부담 ↳ 독일 항로청(WSV) 관할 통항 수심 기준 미달 상태 지속
중국 뉴스 10 건 HIGH	• 루비오-왕이 회담 직후 중국, 타이완 해협서 2일간 실탄훈련 개시 ↳ 훈련 일정: 23일(목)·24일(금) 각각 오전 6시~오후 6시, 12시간씩 진행 ↳ 훈련 위치: 푸젠성 인근 동산 섬 주변 해역(중국 해안 인접 구역) ↳ 정치적 배경: 전일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와 중국 외교장관 왕이의 회담(타이완 등 현안 논의) 직후 실시 •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격퇴 — 스칼보로 암초 주변 해상 긴장 심화 ↳ 물대포 발사: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정부 어업 선박을 목표로 물대포 발사, 간접 직격 기록(23일 15:39) ↳ 선박 격퇴: 같은 구역에서 필리핀 선박 2척도 경고 무시 진입 혐의로 추적·격퇴(23일 14:26) ↳ 양측 입장: 필리핀은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COLREGs) 위반·인도적 구호 활동 방해로 비판, 중국은 불법 침입·도발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 촉구 • 중국,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 상호 관세 인하 협상 진행 중 ↳ 협상 규모: 약 \$300억 상당의 양국 거래 관세 인하 대상 ↳ 협의 내용: 양측 팀이 관세 감축 체계, 무역 위원회(Board of Trade) 운영 구조·기능을 협의 중 ↳ 배경: 지난해 말 미-중 무역 휴전 이후 진행 중인 협상 단계 •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4,02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5% 감소 ↳ 규모: 4,021억 위안(약 \$593.9억), 전년동기 대비 -5% ↳ 월별 추이: 6월 단월은 전년동월 대비 +15.1%로 회복세 보임 • 메모리 칩 제조사 CXMT 차주 상장 — 국가 자금 벤처캐피탈 모델의 이정표 ↳ 정책 의의: 합비시 중심의 정부 자본 벤처캐피탈 방식으로 전략 기술 스타트업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한 모델 구현 ↳ 추진 배경: 기술 자립·생산성 향상, 미국 규제에 대한 대응 ↳ 한계평가: 광범위한 소비·소득 증대로는 여전히 효과 미흡 • 왕이 외교장관, 영국의 중국 기업 국유화에 반발 — 공정한 사업환경 촉구 ↳ 사건: 영국이 중국 민간 철강사 진예(Jingye)가 소유한 British Steel을 국가 안보 명목으로 지난주 국유화 ↳ 중국의 입장: 중국 기업을 위한 공정·공평·비차별적 사업 환경 제공 촉구
일본 뉴스 11 건 HIGH	• 일본 2년물 국채 수익률 1.49%로 31년 최고 — BOJ 조기 인상 베팅 강화 ↳ 2년물 기본점 +5bps → 1.49%(1995년 5월 이후 최고), 10년물 +2.5bps 2.76%, 5년물 +4bps 2.00% 기록 ↳ 경제학자 86% Q4까지 금리 1.25% 인상 전망(6월 79% 대비 상향), 70% Q2 2027년 1.50%

권역	요약
	이상 도달 예상(51%는 이 수준을 최종 목표금리로 평가) ↳ 인상 시점 시장 베팅 집중화: 10 월 46%, 9 월 24%, 7 월 1%(톤탄 리서치 ICAP) — 10 월 인상 시나리오로 수렴 • USD/JPY 162.67~163.14 범위에서 흔들리며 정책 불확실성 반영 — 엔약세 포지션 조정 신호 ↳ 가토야마 재무장관 '필요시 외환 시장에 단호한 조치' 재언급 → 무선매물(예고 없는 시장 개입) 가능성 상기시키며 엔화 약세 숏 포지션 정리 압력 강화 ↳ BOJ 인상 베팅 심화와 재정부 개입 의지 신호가 겹치면서 엔약세 숏 포지션 청산 유도(런던 장중 162.67 까지 낙폭) • 닛케이 +0.46% 마감, 반도체 강세도 금리 정책 불확실성으로 상승폭 제한 ↳ 닛케이 66,422.6(+0.46%), 토픽스 4,053.88(+0.51%) —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4% 영향 받으며 소폭 상승 ↳ 구글 자본지출 상향(\$1,800 억 → \$1,950~2,050 억)이 반도체 섹터 지원하나, BOJ 금리 인상 전망이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하며 낙폭 견제
한국 뉴스 10 건 HIGH	• 한국 2 분기 GDP +0.6% 기대 상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부상 ↳ 반도체 수출 호조로 분기 성장률 0.6% q/q 기록, 건설투자 부진 상쇄 ↳ 전 분기 +1.8%에서 0.6%로 회정했으나 시장 예상(+0.4%)을 초과, 연간 성장률도 3.7% y/y 로 예상(3.5%) 상회 ↳ 한국은행이 현 추세 지속 시 올해 성장률을 3.0%으로 추정하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반도체 강세·AI 투자 낙관론에 KOSPI 7,000 선 최초 돌파, 원화도 5 월 이후 최강 ↳ KOSPI +4.4% 마감(7,096.89), 3 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누적 8% 대 상승폭 기록하며 최초로 7,000 선 돌파 ↳ SK 하이닉스 +4.5~6.5%, 삼성전자 +3.6~4.0% 등 반도체 지수주 주도, 글로벌 기술 수요·AI 투자 확대 낙관론 반영 ↳ 원화 1,465.1/USD 수준으로 5 월 8 일 이후 최강 기록, 달러/원 약세 베팅(숏) 축소 • 한국 환시장 개방·수출 회복에 원화 약세 포지션 축소, 바트·대만달러는 약세 베팅 증가 ↳ 투자자들의 원화 약세 포지션(숏) 5 개월 만에 최저 수준, 한국의 외환시장 개방 정책과 수출 강세가 배경 ↳ 태국 바트, 대만달러는 반대로 약세 베팅 증가, 미국 금리 전망 부담·중앙은행 금리 유지 기조가 변수 • 한국 주가 강세 vs ASEAN 약세, 중동 긴장·유가 상승이 투자심리 제약 ↳ 한국의 4% 대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는 혼조,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국제유가 상승에 위험자산 회피 ↳ 인도네시아 주가는 6 월 초 저점 대비 +20% 회복, 인도 루피는 기록적 약세(97/USD 근처) 지속
인도 뉴스 14 건 HIGH	• 루피 5 월 약세 기조 지속 중 고수준 거래, RBI 당일 96.50 선 적극 개입 ↳ RBI 5 월 순 달러 판매액 \$61 억(달러 매입 \$222 억 - 판매 \$283 억), 4 월 순판매액 \$89 억 대비 상당 규모 완화 ↳ 루피 당일 96.48~96.54 범위 거래, 5 월 기록 약세(최저) 96.96 보다 개선되었으나 고수준 지속

권역	요약
	- 유가 급등 배경: 미국-이란 분쟁 악화(미국 12 연야 이란 공격, 예멘 후티군 홍해 유조선 공격), 브렌트유 \$96.30/배럴 (6 주 최고) • 유가 고착 시 통화정책 인상 시나리오 대두, 1 년물 OIS 금리 6 월 낙폭 회수 1 년물 루피 야간지표금리(OIS) 6.04% (초중 대비 +25bp), 6 월 통화정책발표 후 낮아졌던 수준 회수 6 월 5 일 정책발표에서 기준금리(레포율) 인상 회피, 루피 방어 조치 우선 - 시장 거래자 의견: "유가 진정 없을 시 10 월 기준금리 인상 추진 가능성 높음" • 유가 압박 속 주식·채권·환율 동시 약세, 광범위 손실 확산 - 주식: Nifty50 당일 개장 23,864(전일 종가 23,996 대비 -0.55%) - 의약품·석유마케팅 약세: Dr Reddy's(제약) -4~5%, HPCL(석유마케팅) -5% (1 분기 실적 부진) - 채권: 기준 정부채(6.94% 2036 년물) 수익률 6.8180%, 6.85% 재시험 우려 속 유가 물가 기대감 +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복합 작용 • 태양광 국산화 정책(6 월 1 일 발효) 이후 중국 부품 부족 악순환, 공장 폐쇄 속출 - 인도 태양광 제조사들 국산 부품 확보 대기 중 공장 가동중단, 일부 최대 8 개월 대기 - 부품 공급 정상화 3~4 년 소요 예상, 수천 개 일자리 위협 및 프로젝트 지연 초래 - 중국 기술 수출규제가 인도의 국산화 전략을 역풍 방향으로 작용 • 인도-파키스탄-아프간 집중호우, 82 명 사망 및 광범위 침수 피해 - 인도 아삼주만 36 명 사망(당일 24 시간 내 10 명 추가), 당국 "전무후무한 파괴" 기록 11 개 지역 65 만 명 이상 영향, 농경지·인프라·공공시설 광범위 손상 -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포함 광역 호우 영향
EM 기타 뉴스 25 건 HIGH	• 미국 12 연야 공습 계속, 이란 경비대 호르무즈 해협 '완전 폐쇄' 선언 및 유조선 폭발 - 이란 혁명수비대, 유조선 1 척이 채광된 항로 통과 중 폭발로 화재 발생 (오만 인근 호르무즈 남쪽), 기타 2 척은 회항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명시 경고 — '미국 군사작전 계속 시 어떤 유조선도 미국 조율 없이 입항·출항 불허' - 미국 12 연야 공습(트럼프 지시) 계속 중, 브렌트유 6 월 초 이후 최고 \$96/bbl 로 상승 • 남아공 6 월 CPI 5.0% y/y 상승으로 SARB 기준금리 인상 박차, 랜드 강세 전환 6 월 소비자물가 5.0% y/y 예상 이상 상승 → 25bp(기준점) 인상 최소 확정(7.0% → 7.25%), 50bp 대폭 인상 가능성 재부상 - SARB 2025 년 말 개정 목표대(3.0% ± 1%포인트) 상단(4.0%) 이미 위반 중 → 긴축 압박 강화 - 정책금리 결정 본일 진행 중, 시장 선물에 의해 달러/랜드 환율 변동 확대 • 중동 유가 재상승으로 ECB 9 월 인상 신호 가능성 높아지며, 헝가리 포린트 약세 지속 - 헝가리는 기준금리 인하 중(유럽 이웃과 정반대 방향), 포린트/유로 환율이 약세 전개 - 시장 내재 기대: 중동 유가 ↑ → 유럽 소비자물가 재점화 → ECB 9 월 인상 신호 가능 - 헝가리 중앙은행의 인하는 실질적 통화완화 작용 → 통화약세 유발, ECB 와 정책 방향 배치 • 터키 리라 사상 최저 USD/TRY 47.23 돌파, 정책금리 인상 없는 상황서도 연초 대비 10%

권역	요약
	약세 ↳ USD/TRY 기준금리 결정(기준금리 37% 동결 예상) 앞두고 기록 최고가 47.23 달성 ↳ 연초 이후 누적 약세 10%, 15 개월 연속 월간 신고가 경신 중 → 리라 약세 추세 심화 ↳ 기술적 목표가(시장 추정) 49.85, 52.68 USD/TRY 수준까지 상승 가능성 • 미국-사우디 핵 협력 협정(우라늄 농축 권한 포함)에 이스라엘 지정학적 우려 ↳ 미국-사우디, 사우디의 민간 핵반응로 건설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허용 협정 발표(수요일), 미국 의회 승인 필요 ↳ 이스라엘 정부(네타냐후 총리 등) 공식 입장 미발표, 분석가들은 '장기 전략적 우려' 평가 ↳ 이스라엘 입장: 사우디의 핵능력 보유 → 이란과의 핵 경쟁 구도 심화 우려 • 우크라이나, 러시아 최대 온라인쇼핑몰 와일드베리츠 창고 4 곳 공격 — 민간 소비재 공급망 타격 ↳ 우크라이나 무인기, 와일드베리츠(러시아 소비재 경제의 핵심) 창고를 주말 이후 4 곳 공습, 당일 또 1 곳 폐쇄 발표 ↳ 우크라이나 측 명분: 러시아 군사 보급 인프라 구성 — 러시아·크렘린 '군사 물자 취급 부정' ↳ 양측 모두 민간·인프라 영역의 전투 확대, 경제적 영향 누적 중 • 태국, 노후 운송차량 8 만대 전기차 전환 촉진 — 240 억바트 재정 계획, 보조금·저금리·세제 혜택 ↳ 태국 정부 검토 중인 계획: 노후 차량(특히 픽업트럭) 8 만대를 전기차로 교체, 에너지 전환 지원 ↳ 재정 규모 240 억바트(\$714M), 직접 보조금·저금리 대출·세제 감면 등 복합 인센티브 ↳ 전기차 전체 구매 확대 포함 검토 중 • UAE 주요 은행 2 분기 실적: 아부다비 제 1 은행 순이익 4% 증가, 두바이 최대 은행 보험 ↳ FAB(아부다비 제 1 은행) 순이익 57.2 억디르함(\$1.56B, +4% y/y), 영업수익 7% 상승·순이자수익 15% 점프 ↳ Emirates NBD(두바이) 순이익 64 억디르함(\$1.74B, 전분기 대비 보험), 자산 성장·마진을 견조 유지 ↳ 신용손상 충당금 증가(FAB 75.2 억 → 95 억디르함) 우려 신호, 양행 모두 이란 전쟁 3 개월간의 지정학 리스크 영향 평가 • 체코 통화위원, 올해 추가 1 회 인상 가능 하지만 '긴급성 없음' 강조 — 8 월 회의 검토 ↳ Kubicek 통화위원: 8 월 회의에서 인상 검토 가능, 연중 1 회 추가 정도 선 인상 가능성만 시사 ↳ '긴급성 없음' 명시, 시장의 과도한 인상 선물 가격 투입 비판 ↳ 관찰 대상: 임금·주택가격·근원인플레이·대출 속도·장기금리 여과 속도 • 인도네시아 6 월 광의통화(M2) 성장 +8.7% y/y, 5 월 +10.8%에서 둔화 — 중앙은행 100bp 누적 인상 효과 ↳ 통화 공급 증속 완화, 5 월 이후 중앙은행 100bp 누적 인상 및 고금리 정책화 효과 시작 가시화 • 인도네시아 Danantara 투자사, 20~30 년물 장기 달러채 \$500M 이상 발행 검토 ↳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 20 년 또는 30 년물 중 1 개 텐더 선택해 발행 계획 ↳ 6 월 \$1.5B 발행 이후 재차 자금 조달, 자카르타 주식시장 반등이 시장 심리 개선 신호로 작용

권역	요약
	• 인도네시아 루피아 약세, USD/IDR 17950 근처 상승 압박 — 브렌트유·NDF 함께 상승 ↳ USD/IDR 전일 마감 17,875 에서 개장 시 상승(gap up) 예상, NDF 17950~17960 범위 ↳ 지원 요인: 브렌트유 \$95.74/bbl(+1.78%), 중앙은행 달러 헤징 비용 인하 인센티브 역부족 ↳ 저항선 17930, 17950; 지지선 17850, 17800, 중앙은행 금리인상 거부로 달러 유입 압박 계속 • 태국 2026 년 상반기 투자신청 \$43.6B —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 정부 투자 유인책이 기업 신규 투자 촉발하는 신호 • 태국 중앙은행, 금 소매 거래의 현금 결제 한도제 제안 — 환율 투명성 강화 목표 ↳ 금 막대 거래: 개별 고객당 일일 100 만~1,000 만바트(\$29,546~\$295,946) 현금 상한선 제안 ↳ 금 소매점 간 거래: 일일 1,000 만바트 상한 ↳ 목표: 거래 투명성 강화, 환율 영향 통제, 공개 협의 8 월 20 일까지 • 아시아·유럽·북미 외교장관 마닐라 ASEAN 포럼 소집, 중동 호르무즈·에너지 안보 아젠다 ↳ 안보 중심 ASEAN 지역포럼(ARF) 마닐라에서 개최 중 ↳ 이란 전쟁 격화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대두
프론티어 뉴스 2 건 HIGH	• 카자흐스탄 드론 공격으로 유전 수출터미널 폐쇄, 산출량 50% 이상 급감 ↳ CPC 흑해 터미널(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의 주요 수출 시설) 드론 공격으로 수출 적재 중단 ↳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 산출 능력이 절반을 넘어 감소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내일 기준금리 17% 동결 예상 (로이터 설문) ↳ 설문 대상 11 명 애널리스트 중 8 명은 17% 동결, 3 명은 16.5%로 인하 전망 ↳ 6 월 중앙은행이 18%에서 17%로 인하한 이후 첫 회의, 고인플레이션 속 긴축 정책 유지
대만 뉴스 1 건	• 대만 6 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22.95% 증가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